## 대한전기학회

회 장 정 태 호

# “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력있는 학회 조성 ”

### 1. 대한전기학회의 역할 및 비전

대한전기학회는 21세기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정보산업 및 지식산업을 선도하고, 전기공학과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전기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이끄는 핵심 중추기술이고 21세기 정보화 사업을 이루는 한 원동력으로서 지금까지 현대 과학기술을 선도하여 왔으며 인류사회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동안 IT, NT 등 첨단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전기공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이제는 이 공계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고,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력있는 학회를 만들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며, 전기공학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

하루가 다르게 산업환경은 변하고 있으며 그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업체는 화려한 명성을 뒤로 하고 파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지난 5월 세계적 필름 기업인 아그파포토가 디지털 사진이라는 첨단 기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140년 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는 우리 전력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력산업은 수급안정과 공급능력 확충을 1차 목표로 했고 설비투자 역시 경제발전에 따라 성장위주의 정책을 유지했으며, 전통 중전기기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IT가 접목된 전력 IT로의 산업 화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이고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전력 IT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숙산업으로 인식된 전력산업에 IT를 포괄적으로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세계 전력기술

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 3. 무한경쟁에 대응한 전력산업 발전방향

1995년 WTO/TBT 협정은 국가규격 등의 제?개정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Global Standard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술선진국은 표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 시장을 방어하는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기술표준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좋은 기술이 사장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력산업계는 "전력분야 기술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Global Standard화 함으로써 향후 우리 전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4. 대한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40년 동안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기술기준, 전기품질, 전기공학도 양성 장학사업, 전기기능인력 양성 등 전기분야 전반에 대해 지대한 공헌을 했고, 향후에도 국민의 이익과 전력산업계의 공익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전기협회에서는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관련 단체들의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